대전시립무용단 제72회 정기공연

춤극 오페레타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김평호

월인천강지곡
불멸의 사랑

2022.
11. 18. (금) 19:30
- 19. (토) 17:00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주최 대전광역시 대전MBC
주관 대전시립무용단

인사말

춤극 오페레타 月월 印인 千천 江강 之지 曲곡
하나의 달이 천개의 강을 비추는 '월인천강지곡- 불멸의 사랑'으로 관객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우주에 하나뿐인 달처럼 세상에 하나뿐인 새로운 초연 춤극 '월인천강지곡- 불멸의 사랑'은 한국적 컨템퍼러리 형식의 오페레타로 새롭게 도전입니다. 홀로그램의 영상과 입체적 조명, 상징성을 부각하는 무대미술과 심플한 의상의 바탕 위에 성악의 아리아와 합창, 어쿠스틱의 라이브 연주 앙상블의 조화로 춤 무대 확장과 작품 질감을 높이고 춤이 갖는 역동성으로 극의 몰입과 감정을 깊이 있게 전달해 큰 울림과 감동을 해원(解源) 하는 공감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의 작품은 임오섭 작가, 조석연 작곡자와 십여년 전부터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늘 창작의 고통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정상을 향해 오늘도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여정이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이기도 합니다. 기꺼이 항해를 함께 하신 노현식 연출님과 제작진, 성악가 및 합창단들과 연주단께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열정을 다하는 대전시립무용단 단원들과 사무국에 머리 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인간은 말하고 노래하고 춤추지 않을 수 없다.
말할 적엔 생각하는 두뇌가 동원되고 노래할 적엔 정서가 동원된다.
춤출 때에는 모든 것을 물리치는 디오니소스적인 황홀경이 동원된다.
- 이사도라 덩컨 -

감사합니다.

2022. 11.
예술감독 **김평호**

김 평 호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樂, 歌, 舞一體의 가치를 표방하며, 수많은 예술적 경험들과 다양한 노하우의 축적으로 전천후 예술가로서 큰 예술적 성과를 이루고 있다. 단원으로 출발해 지도위원, 훈련장 등의 역할과 창원, 청주시립무용단 상임 안무자로서 수많은 작품의 안무와 공연으로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중국 동북 사범대학과 경주 대학교에서 교수로서도 교육자의 역량과 김평호류 '남도 소고춤' 브랜드 개발로 한국무용의 교본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폭넓은 활동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미래를 열어갈 한국 예술의 중심!
한국무용의 중심으로 도약과 생동감이 넘치는
대전시립무용단!

1985년 창단된 대전시립무용단은 37년 동안 쌓아온 저력을 바탕으로 대전시민과 호흡을 함께 하며, 과학, 문화, 행정, 교통 중심 도시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연간 50여 회의 공연으로 지역 춤 문화 발전을 견인하며, 한국 춤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으며, 대전시민을 비롯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문화예술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2021년 김평호 예술감독 영입으로 한국무용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한국인의 숨결 속에 감추어진 역동성과 삶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의 대표적 무용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작품의도

춤극 오페레타
불멸의 사랑 <월인천강지곡>은
세종과 소헌왕후의 이야기다.

조선의 성군이며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의 분야에서 수많은 역사적 업적은 물론 백성을 위한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한 조선의 3대 임금 세종의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은 작품과 드라마 또는 영화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세종이 이룬 위대한 업적의 원동력이 왕비 소헌왕후의 헌신적인 사랑의 힘이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제대로 조명된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훈민정음으로 쓰인 조선 최고의 가사 '월인천강지곡'이 먼저 세상을 떠난 소헌왕후의 영전에 바친 세종의 사랑과 정성을 담은 선물이었다는 역사적인 사실 또한 모르는 이가 많을 것이다.

춤극 오페레타 불멸의 사랑 <월인천강지곡>은 남편 세종을 향한 소헌왕후의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이 어떻게 세종을 조선 최고의 성군이 되는데 일조하였으며, 한국을 세계의 문화중심으로 우뚝 서게 하는 초석이 된, 위대한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관한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를 춤과 노래로 담아낸 작품이다.

프롤로그

월인천강지곡

하늘의 달은 천개의 강을 비추지만
나의 달은 오직 하나의 강만 비추리다
죽음보다 멀고 슬픔보다 깊은 강을 건너
당신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리라
당신을 향한 그리움 산을 넘고
당신을 향한 간절한 강이 되어
꿈속에서도 놓지 못할 아름다운 손
내 꿈 깨어도 놓지 않으리
천년전 다정한 이 목소리 천년이 흘러도
귓가에 들리듯 기억하소서

프로그램

1장 : 왕의 나라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형제의 난을 통해 임금의 자리에 오른 후, 세종 이도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자신은 실세를 쥔 상왕으로 집권한다. 상왕이 된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세종에게 물려주기 위해 훗날 위협이 될 수 있는 외척 세력, 세종의 왕비 소헌왕후의 아버지 심온을 역적의 죄를 씌워 척살한다.

역적의 죄를 쓰고 처참하게 죽어야 했던 아버지,
노비로 전락한 어머니를 향한 한과 눈물을 안고 살아야 했던 소헌왕후에게
세종의 따듯한 사랑은 삶의 이유가 된다.

말 위에서 세운 조선 칼과 피로 세운 나라
하늘에 오를 태양은 하나 역사를 비출 찬란한 빛
그 빛을 따르는 백성 긴 그림자 따르는 신하
먹구름 드리우는 자 번뜩이는 역모의 칼날
그림자 밟는 역적의 무리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 단칼에 응징하리라

혼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오르고, 백은 눈물 따라 땅으로 스미고
막막한 어둠 속 끝 모를 깊은 잠, 입술을 깨물어 피를 삼키며
슬픔을 참고, 바람에 눈물을 날려 아픔을 견디어도
이 몸이 산산이 흩어지는 고통, 운명은 나에게 칼날이 되고
사랑은 나에게 운명이 되네
오늘 같은 두려움에 떠는 백성이 더 이상 없도록 부디 성군이 되어 주소서

2장 : 백성의 글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와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말 위에서 칼과 활로 세운 나라 조선을 말에서 내려 백성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백성을 위한 글을 만들기 시작하는 세종!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훈민정음 창제에 몰두하는 세종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필하고 큰 힘이 되어 주는 소헌왕후, 세자 향과 정의 공주 또한 아버지 세종의 뜻에 따라 백성을 위한 글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 백성의 근본은 나라
임금은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
글을 몰라 죄를 짓고, 글을 몰라 불효하고
글을 몰라 인간이 되지 못하네 발음기관의 모습을 담아 자음을 만들고
천지 음향의 조화를 담아 모음을 만들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뜻을 담아 새로운 글을 창제하리
오늘 같은 두려움에 떠는 백성이 더 이상 없도록 부디 성군이 되어 주소서

3장 : 이별

세종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전 소헌왕후는 세상을 떠난다. 12살 어린 나이에 소헌왕후를 부인으로 맞이한 세종은 단 한 번도 소헌왕후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마음이 떠난 적이 없었다. 하늘의 달이 된 소헌왕후를 그리는 세종!
꿈 속에서 그 사랑을 만난다.

4장 : 훈민정음은 아니 되옵니다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를 필두로 많은 신하가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하자 팔도의 유학자와 서생들도 덩달아 훈민정음을 반대하고 나선다. 하지만 백성을 바르게 가르칠 글을 만들고 반포하겠다는 세종의 뜻을 꺾지는 못한다.

조선의 문자를 만드는 것은, 대국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백성은 농사짓는 소와 말
무지한 백성에게 글은, 백성이 글을 깨우치는 것은
대국의 뜻을 어기는 반역
백성의 글은 "아니되옵니다."
백성을 위한 문자 "아니되옵니다."

저 들판의 메마른 백성들을 보라
글을 쓰고 읽을 줄 몰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무죄를 밝히지 못하니
형장으로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구나
내 어찌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
가련한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지 않으리오
이 맑고 신비한 초수가 뭍 생명들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듯
백성을 위하여 만든 글

5장 : 1446, 백성의 글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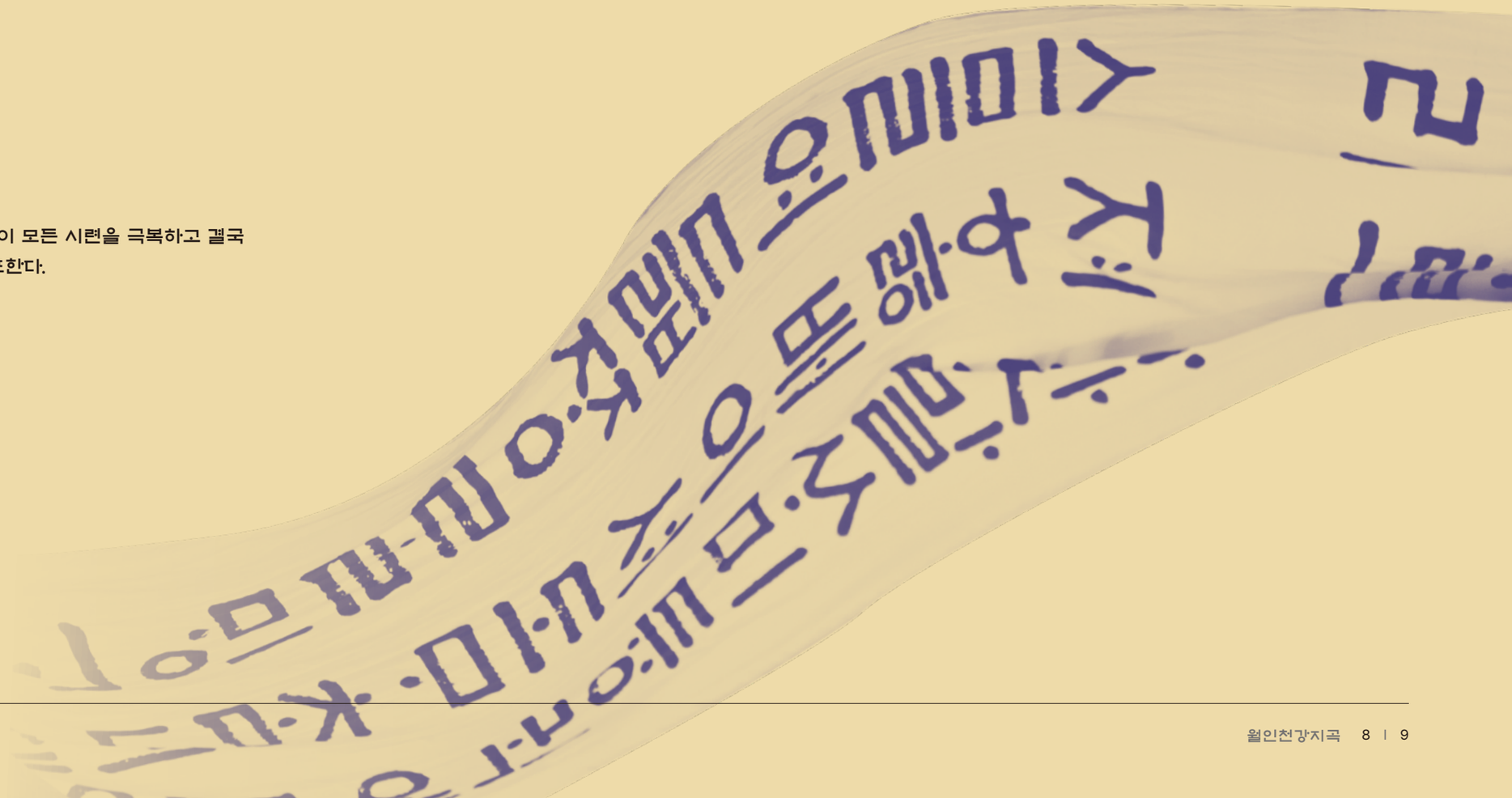
소헌왕후의 죽음, 신하들의 반대, 병들어가는 몸! 세종은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 즉위 28년 되던 1446년 9월 훈민정음을 공식적으로 반포한다.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 와로 서로 사맛디 아니 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져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쉽게 펴지 못하느니라
내 이를 위하여 어엿비여겨
새로 스믈 여덟 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로 쓰메 편하코져 할 따르미니라

에필로그 : 불멸의 사랑, 월인천강지곡

소헌왕후가 떠난 3년 뒤 세종은 '월인천강지곡' 을 손수 지었다. 훈민정음으로 쓰인 조선 최고(最古)의 가사 '월인천강지곡' 은 평생 눈물과 한을 삼키며 불법에 의지해 살아갔던 부인을 위해 남편이 해줄 수 있었던 마지막 사랑의 선물이었다.

하늘의 달은 천개의 강을 비추치만
나의 달은 오직 하나의 강만 비추리다
죽음보다 멀고 슬픔보다 깊은 강을 건너
당신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리라
당신을 향한 그리움 산을 넘고
당신을 향한 간절한 강이 되어
꿈속에서도 놓지 못할 아름다운 손
내 꿈 깨어도 놓지 않으리
천년전 다정한 이 목소리 천년이 흘러도
귓가에 들리듯 기억하소서



등장인물

세종

18일 김임중

19일 이현수

소헌왕후

18일 강영아

19일 서예린

세종 아리아

테너 권순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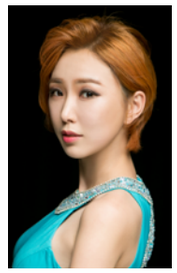
목원대학교 성악과 졸업
텍사스 주립대학교 오스틴 석사(MM), 최고연주자(AD),박사(DMA) 전액 장학 졸업
오페라 라보엠, 사랑의 묘약, 나비부인 등 20여 편의 주, 조역 출연
현)목원대학교 성악뮤지컬학부, 외래교수 및 전문연주자

태종 아리아

베이스 이두영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졸업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성악과 및 예술가곡과 졸업
오페라 라보엠, 사랑의 묘약, 마탄의 사수 등 다수 출연
현) 충남대학교 외래교수

소헌왕후 아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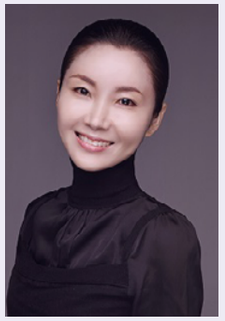


메조소프라노 고은희

숙명여대 성악과 및 이화여대 공연예술대학원 석사 졸업
오페라 마술피리, 바스티엔 바스티엔느,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넌버벌 퍼포먼스 셰프 등 출연

무용

연습지도자 · 조안무



김지원

창작공연 NO-Ri
토생전, 옹고집전 등 다수 안무
우봉 이매방춤
전국무용경연대회 특상(장고)

구서영

대전시립무용단원,
경기도립무용단 수석단원 역임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미래교육원 강사 역임

수석

강영아 육혜수 이지영 이현수 김임중 서예린

부수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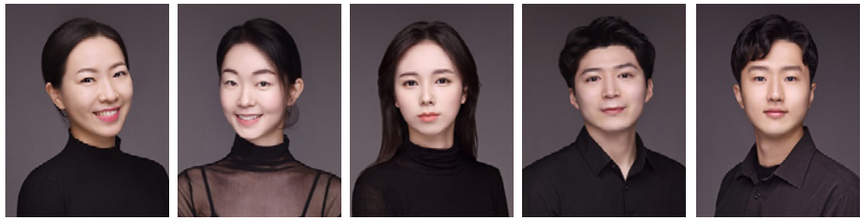
유미선 향 유재현 오송란 장인실 배진모 심온 김창은

상임

이미자 복성수 정명지 김한덕 김희영 곽영희

류은정 김수진 장영희 구재홍 정인선 정세연

임자영 김설혜 이유라 태종 김기석 복민선 박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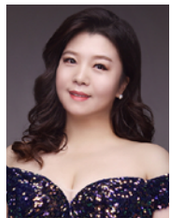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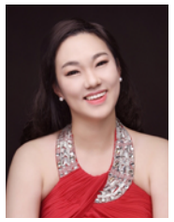
유아리 임희정 정의 이윤정 김민종 장재훈

비상임

정지욱 나소연 김태린 김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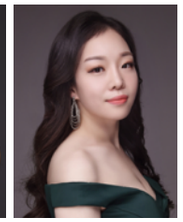
합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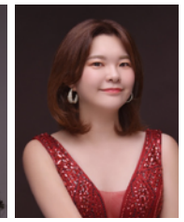

소프라노 고상미


소프라노 서영미

소프라노 한솔이

알토 이호정


알토 심지은


알토 김주선

테너 정윤식

테너 신하섭

테너 성열인

베이스 고성현

베이스 최승만

베이스 이상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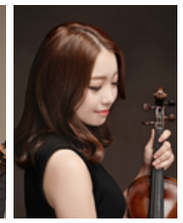
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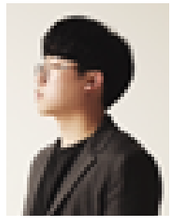
악장 이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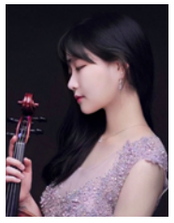
Violin1 순지선

Violin1 김성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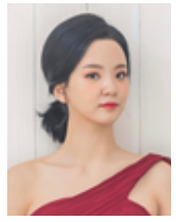
Violin2 김동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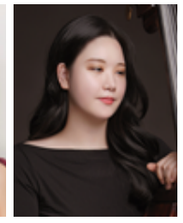

Violin2 조정인


Viola 곽규민


Viola 이채은

V.Cello 김민정


V.Cello 서한나


C.Bass 오지현

STAFF

대본 및 작사
임오섭

작·편곡 및 지휘
조석연

연출
노현식

무대감독
한희태

음향감독
김성욱

조명감독
이유진

영상감독
우기하

무대디자인
박 경

영상디자인
한지원

의상디자인
박미영

컴퓨터 음악제작
박주희

분장
소인경 아트폼

영상촬영
김희돈

사진촬영
박상윤

무 대 제 작 중부무대미술연구소
무대제작기술 김희진
무 대 팀 김응완 연준원 안승범 김지연
음 향 팀 박창수 최아름
조명프로그래머 윤 수
조 명 팀 임영직 강명석 임민혁 최성민 이정원 설진수 유성욱
영상프로그래머 이성욱
공 연 진 행 이동희 양효윤

사 무 국
사 무 국 장 고은랑
기 획 팀 장 명희성
홍 보 박민아
의 상 소 품 문다비
마 케 팅 신미영

<다음공연안내>

dmdt.artdj.kr

대전시립무용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35 대전예술의전당 내
문의 (042)270-8353~5